

저소득층 아동자원형성 프로그램과 기독교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연구

김인숙 (신홍대학교)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소득보장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투자정책으로써 도입된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지원정책인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계좌(Children Development Account, CDA)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맞춤형 기독교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디딤씨앗통장사업은 시설보호·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공동생활가정·장애인생활시설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at-risk children)들이 후원자 등의 도움으로 저축을 하면 정부가 매월 3만원 한도에서 같은 금액만큼을 매칭지원금으로 적립시킨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에 지원을 통해서,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빈곤아동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및 저축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까지 포함하면, 56,637명 가입대상아동 중에 통장개설이 72.7%이며, 요보호아동은 93.6%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한 아동은 전체의 96.7%로 33,735명에 이르러서, 거의 100% 저축을 하고 있다. 아동저축 누계액은 2012년 4월말 기준 1,000억원을 달성하며, 후원자프로그램을 통합 시행하는 중앙집권화된 매칭시스템으로 저축실적의 성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아동복지시설), 사기업, 가족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상호협력 체계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복지통합적 요소를 가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요보호아동들이 경제의 합리적인 소비 및 저축습관 형성에 필요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디딤씨앗통장CDA사업 운영기관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경제교육으로, 빈곤에서의 탈피를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이룰 수 있음을 제안한다. 첫째, 만물의 공급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자원형성의 중요성 둘째, 빛에 성경적인 경고, 셋째,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도록 하여 자립할 수 있는 영적, 물질적 자원 형성을 이루도록 한다.

주제어: 저소득층, 자산, 아동발달계좌(CDA)사업, 디딤씨앗통장, 기독교경제교육

I. 서론

2012년부터 빈곤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빈곤 아동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의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기준)은 7.42%,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은 10.8%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 인구가 800만명인데 이 중 100만명 정도가 빈곤 아동이며,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포함하면 110만~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사회에서의 빈곤아동은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기회의 불평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며,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또한 아동기의 빈곤의 경험은 이후 아동이 성장함에 있어 낮은 인지적 능력 및 저학력 등의 낮은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 사회에서 아동 개인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적자본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소득보장지원제도의 한계, 심각한 자산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2006년 ‘사회투자국가’를 선언하면서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사업의 빈곤아동에 대한 투자사업과제가 선정되었다. 2007년 4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디딤씨앗통장’CDA사업을 시행했고, 시설보호·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공동생활가정·장애인생활시설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at-risk children)들이 후원자 등의 도움으로 저축을 하면 정부가 매월 3만원 한도에서 같은 금액만큼을 저축해 주는 저소득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요보호아동들은 ‘디딤씨앗통장’CDA사업 이전에는 사실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자립은 개인 스스로의 독립성을 키우는 과정으로 간주되었고, 보호시설에서 나올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지원이나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책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경제적 안정과 장기적인 자기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불충분한 정책이었다. 고등학교 졸업률이 95%로 매우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진학률은 27%이며, 이 수치는 일반적인 아동의 대학진학률이 82.1%에 비교한다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인력자원개발부, 2007). 따라서 ‘디딤씨앗통장’CDA사업은 요보호아동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서,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빈곤아동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수립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자산형성프로그램의 경제교육은 저축액의 증가 및 미래에 대한 경제적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Sherraden, 2010), 지속적인 자산형성이 습관화되게 도와준다. 요보호아동에게는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부재함으로, 경제의 합리적인 소비 및 저축습관 형성에 필요한 경제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디딤씨앗통장’ CDA사업에 대한 경제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한국아동복지협회 20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2).

본 연구에서는 디딤씨앗통장 CDA사업의 현황과 적립금 운영체계를 알아보고, 경제교육에 대한 모니터링과 만족도조사결과(한국아동복지협회 20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2)분석과 현재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기독교 경제학자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 CDA사업에 대한 경제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경제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산형성과 디딤씨앗통장 CDA사업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전통적으로 저소득층을 소득을 보장해주는 소득지원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1997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리에 의한 보충급여의 방식으로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자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요구를 저하시키며, 물적,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탈빈곤을 어렵게 하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양극화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정책은 라운트리(Rowntree, 1901)의 연구에서 빈곤이 개인의 무능과 나태에서 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빈곤원인과 탈빈곤정책의 제도적 접근이 시도됨으로써 이루어졌다. 특히 자산빈곤의 정의, 자산빈곤계층,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적 접근에 의한 연구에서 셰라든(Sherraden, 1991)에 의하면, 자산 형성과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중요성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도록 하는 것이 단순히 기본적인 소비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소득지원 프로그램보다 빈곤탈출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자산에 대한 연구는 자산이 생애 과정에서의 재정적인 축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보다 장기적이고 역동적으로 간주되고, 가구의 경제적 복지를 역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는 단순한 소득보장지원보다는 저축 및 자산적립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의 소유가 아동의 성장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 아동의 교육적 성취와 경제적 지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논의되어 왔으며, 아동의 생애 기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축적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Conley, 2001).

셰라든(Sherraden, 1988, 1991)은 자산은 소득이 주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광범위한 측면에서 아동기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로 하여금 일과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적은 정도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만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자산형성과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네가지 구성요소를 접근성(access), 동기부여(incentives), 정보제공(information), 촉진(facilitation)으로 구분하고, 접근성은 저축이나 재정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 동기부여는 저축의 안정성 및 매칭율, 이자율을 포함하고, 정보는 재정교육을 통한 정보획득, 촉진은 계좌이체나 실무자들의 지지를 제시하였다(Beverly and Sherraden, 1999).

2.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과 경제교육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의 경제교육을 실시함으로 저축액의 증가 및 미래에 대한 경제적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Sherraden, 2010). 금융교육이 실시되는 시간을 증가시키수록 참가자들의 저축 빈도수가 증가하고, 또한 월별 저축목표액 설정도 높아지고 실제저축액도 증가하는 결과가 저축 빈도수의 증가와 함께 나타남을 보였다(Beverly and Sherraden 1999; Sherraden 2001). 참가자들이 직접적으로 예금을 하는 저축빈도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월 저축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서 저축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 자산빈곤 및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 개인 및 아동개발계좌 프로그램에 관련된 경제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이태진 외(2005)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모형을 제기하였으며, 대상과 급여기간, 매칭률, 적립금목표액, 급여지급 등을 제시하고, 전달체계에서는 지방자치체가 수급자를 선정하는 절차와 관리방법, 수급자와 은행 및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김연명 외 (2007)과 최영 외(2009)이 해외의 아동발달계좌를 소개하고 국내도입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김미숙 외(2007)이 아동발달계좌의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CDA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로는, 남윤주·한창근(2009)이 정책연구자들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외국의 CDA사업과 차별화되는 '한국형CDA사업'의 현황을 설명하였다. 김혜연(2011)은 아동발달계좌 사업의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서울시복지재단의 꿈나래 통장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발달계좌사업과는 달리 사업의 구조적 측면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모와 관련된 변인들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남을 보였다. 국내의 CDA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 디딤씨앗통장 자산형성에 관한 경제교육 및 제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II. 디딤씨앗통장사업: 운영지원체계 및 경제교육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아동(약 36천명)으로,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그림홈) 및 장애인시설아동이 포함되며 2011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디딤씨앗통장 지원기간 중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표1>에서 볼 때, 2010년 12월말 기준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아동은 39,586명이며 통장을 개설한 아동은 34,608명으로 가입률은 약 87.4%에 이르며, 12월 저축률은 95.6%로 33,083명의 아동이 저축을 하였으며, 2011년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까지 포함하면, 56,637명 가입대상아동 중에 41,180명이 통장을 개설하여 72.7%이며, 요보호아동에 대하여서는 93.6% 아동이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한 아동은 전체의 96.7%로 33,735명에 이르러서, 거의 100%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가입대상	가입아동	가입률	저축아동	저축률	
2007	40,751	31,818	78.1	28,905	90.8	
2008	40,308	31,932	79.2	28,999	90.8	
2009	40,437	32,197	79.6	31,218	96.9	
2010	39,586	34,608	87.4	33,083	95.6	
2011	요보호	37,234	34,873	93.6	33,735	96.7
	수급	21,767	6,307	29.0	4,446	70.5
	계	56,637	41,180	72.7	38,181	92.7

복건복지부, 한국아동복지협회(2012) 내부자료

<표1>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적립현황 ('07~'11년)

1. 자산형성지원 적립금의 운영체제

지원내용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매칭적립금을 지원하게 되며, 대상아동과 국가의 매칭비율은 1:1로 최대 월 3만원까지 지원한다. 기본매칭 3만원을 적립한 아동은 월 47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정부의 매칭지원 기간은 만 17세까지이나 아동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적립이 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아동의 적립금통장계좌가 자동적으로 개설된다. 아동 또는 보호자들의 저축액은 본인의 저축계좌에 적립이 되고, 정부매칭 지원금은 펀드계좌에 적립이 되어서 따로 관리된다. 아동의 보호자들이 아동의 동의없이 통장해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계좌에 있는 매칭지원금만은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07). 연도별 아동저축 누계액이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377억원, 정부매칭지원 누계액은 약 308억원으로, 2010년 12월말 아동의 자립자금으로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된 총저축액은 약 685억원임을 나타낸다. 2012년 4월말 기준 1,000억원을 돌파했다(www.adongcda.or.kr).

적립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 18세 이후 고등교육을 위한 학자금, 자격증 취득 등에 소요되는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아동의 자립 또는 인적자본개발에 사용되도록 사용처를 제한하여 적립금이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물질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정기간 이상을 적립한(요보호아동 5년, 기초수급아동 3년 이상) 만15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만18세 도달 전이라도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적립금에 한해서는 조기자금이 가능하지만, 적립된 정부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보존된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대한 후원자제도는 정부의 정책으로 이미 1977년에 시행되었다. 정부는 요보호 아동에게 이루어졌던 기존의 후원자지원 프로그램과 CDA사업의 후원자프로그램을 통합하였다. 시설아동의 경우에는 유일한 현금수단은 기존 후원자의 후원금이다. 이 유일한 현금수단이 CDA후원자 프로그램에 의하여 개인CDA구좌에 예치됨으로, 저축률이 높아지고, 예치금액도 높을 수 있도록 하며, 민간 부문 참여를 높이고, 정부의 예산부담을 경감한다. 현금후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첫째, 기존의 후원자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지정한 아동을 후원하는 후원금은 아동과 보호자들의 동의하에, CDA계좌로 직접 저축된다. 둘째, CDA 후원자프로그램에서는 CDA만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후원한 금액은 CDA 후원자공동기금으로 예치되고, 이 후원자예치금을 지정된 아동의 개인통장에 적립을 시켜주고, 아동은 자신의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자신의 CDA계좌로 예금을 하게 함으로, 아동의 저축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셋째, CDA 목적이 아닌 아동에 대한 일반 후원금은 CDA사업으로 활용하는데, 우선 후원자가 없는 아동과 저축액이 적은 아동에게 재분배 한다.

[그림1] 디딤씨앗통장 CDA프로그램의 운영지원체계

2. 디딤씨앗통장사업의 경제교육

디딤씨앗통장사업의 경제교육은 2007년 사업시행 초기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담당하였다. 회망주머니』라는 경제교재를 제작하고, 내용으로는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이해, 1대1 매칭의 개념, 적립금의 사용용도를 알아보고, 올바른 용돈관리와 소비, 선택과 포기, 이자의 개념을 교육하며, 저축의 필요성과 저축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디딤씨앗통



지부, 한국아동복지협회(2012) 내부자료 장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바뀌어서, 2008년에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실시하고, 2012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CDA사업과 경제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 실시된 디딤씨앗통장 경제교육 결과보고서(홍미 외, 2011)에 따르면, 55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대부분 시설보호아동들이었다. 전국지역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전체 282개소 중에서 141개소를 방문하였고, 그룹홈 15개, 가정위탁센터 4개소를 방문하였다.



[그림2] 보호유형별 경제교육현황 (2010년)

경제교육을 실시한 시설보호단체들은 지역별로는광역시 및 중소도시에서 각 35%이상, 농어촌은 27.6%이며, 종교별로는 기독교 단체가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불교 6.6%, 가톨릭 2.5%, 무교 및 기타 21.6%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분류했을 때는 전남, 광주, 대전, 인천 지역에서는 경제교육을 받은 아동보호시설단체의 100%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 기독교단체 비율로, 전북은 85.7%, 대구 78.5%, 부산 71%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과 경남 64%, 경기, 충남, 충북, 강원은 53~58%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이 30%로써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교육을 실시한 아동보호시설단체들 중에 약 70%가 기독교단체로 나타난 것은, 많은 요보호아동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 아동의 저축습관 형성

아동들이 스스로 용돈을 모아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수 있는 월별 목표액을 조사한 결과(홍미 외, 2011)를 보면, 1,000원을 하겠다는 아동이 830명으로 전체의 24%로써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위로는

10,000원이 720명으로 21%, 30,000원이 626명으로 18%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000원이하로 하는 아동들이 32%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신의 자산 형성에 대한 기대를 갖는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저축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경제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림4] 본인의 용돈에서 저축목표액

(2) 경제교육 만족도 및 추후 참여의사

경제교육 도움 정도는 '매우 그렇다'가 55.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앞으로의 저축의향도 53.1%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교육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교육에 다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45.4%로 나타났고, 이는 다른 만족도 수치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치이며, 경제교육의 추후참여의사가 '전혀없음' 과 '없음'에 대한 응답수치가 높은 것을 볼 때, 경제교육을 추후로 더 받고자 하는 필요성을 갖도록 하고 수업에 참가하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표3).

구분	단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본인 수업참여도	2.9	3.4	26.5	26.2	41.0	100(5,365)
타인 수업참여도	3.6	5.6	28.0	28.1	34.6	100(5,374)
경제교육 만족도	2.8	2.3	15.4	26.0	53.5	100(5,350)
강사교육 설명만족도	2.6	1.7	13.7	27.2	54.8	100(5,351)
경제교육 도움정도	2.5	1.8	14.2	26.4	55.2	100(5,348)
앞으로 저축의향	2.7	1.9	16.9	25.5	53.1	100(5,343)
추후 교육 참여정도	4.5	4.2	22.7	23.2	45.4	100(5,349)

북경복지부, 한국아동복지협회(2012) 내부자료

<표3> 경제교육만족도

VI. 기독교경제교육에 대한 시사점

디딤씨앗통장사업이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의 100%가 CDA저축아동임을 감안한다면, 저축적립금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핵심적인 경제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교육지원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교육을 실시한 아동보호시설단체들 중에 70%가 기독교 신앙으로 생활하는 단체인 상황에서는, 많은 요보호아동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독교경제학자들이 기독교세계관과 경제관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채능 기부하여서, 보건복지부 또는 신한은행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또는 개교회들과의 후원협력사업을 통하여, 요보호아동들에게 물질자원형성지원 뿐만 아니라 영적자원형성지원이 가능케 할 수 있다.

성경에서 돈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구약에서도 돈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며(모세오경, 시편, 잠언),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38개의 비유의 말씀 중에 16개가 돈과 재산 관리에 관한 것으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구절보다 돈에 대해서 언급을 더 많이 하셨다(김충런, 2009: 39)

아이들의 돈관리 훈련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신 4:9)”,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 22:6-7).”에서 보여주며, 비슷한 말씀이 있다(신 6:7). 이는 자녀에게 가르칠 성경적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1. 영적자원형성의 중요성

경제의 합리적 소비와 저축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돈을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과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모은 저축액이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경제교육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자원형성이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영적자원형성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 성경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었던 구약의 예서와 신약의 유다를 들고 있다. 예서는 야곱의 형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이 배가 고했을 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며 장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팔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 버렸다(창 25:31-34). 이 일로 인하여 예서는 일생동안 후회하였다. 신약에서의 가롯 유다도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나 결국은 자살하였다. 물질적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빼앗기지 않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영적자산형성과 물질적자산형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산형성 경제교육은 만물의 공급자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대상 29:11-12).”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이레”(창 22:14)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솟양을 수풀에 걸려있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하셨다.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과정과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러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신 8:14-16). 현대의 기독교인들에는 광야같은 삶속에서 받는 신앙의 훈련이 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을 훈련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수단,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성경은 돈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재물의 공급자이심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에게 부하게 하시고(잠 10:22)”,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전 5:17)”,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롬 10:11-12).”

2. 재정계획의 중요성: 빛에 대한 교육

경제적으로 절서가 있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올바른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성경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적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물을 가져다 주실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작정 집에서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빛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며, 빛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신 28:12).”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빛을 지는 근본 원인으로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무시하는 욕심과 무절제의 낭비와 과소비를 들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빛을 지게 되는 사람은 절약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저축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투자에 있어서도, 욕심을 가지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현재 가진 재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얻어 가며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빛을 갚을 능력이 없다 하여 무조건 파산선고를 신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빛을 갚지 않는 자를 악인으로 부르며,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배운다(시 37:21)”고 했다. 성경에서는 빛지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라고 한다. 할 수 없이 빛지게 되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로 벗어나야 하며(왕하 4:1), 장기채무도 허용기한은 7년이다. “매 칠 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 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와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신15:1-2)”.

3. 후원자프로그램: 섬김과 나눔의 교육

아동들에게 디딤씨앗통장CDA 후원금을 보내주는 후원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한다. 섬김(Diakonia=Servicing)과 나눔(Koininia=Sharing)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네 이웃이 누구니이까?”(눅 10:29)” 라도 묻는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섬기고, 비용을 내어 주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 이라고 하셨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신앙의 핵

심이요 진부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구약에서는 나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 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잠 11:24-25)”. “그가 재물을 홀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주에 들리리도다(잠 22:9)”.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섬김과 나눔의 교육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리더십 향상 및 사고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심리학자 에릭슨(E.H. Ericson)에 따르면 2~3세 되면 유아들이 ‘나’와 ‘남’을 구분하며, 4~6세에는 관대함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 6~11세는 성취감과 열등감이 형성된다고 한다. 섬김과 나눔을 통해 누군가를 돕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상당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봉사활동은 독립함과 소외를 막아주고, 사회적 기술을 개발시켜주고,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과 사회에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박선경, 2011: 179). 특히 저소득층 아동이 물질을 나누지 못해도 재능과 시간으로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이웃에 대한 존중, 감사, 관대함, 그리고 책임감 같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종이 되어서 죄인들을 섬기시고, 자기를 비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6-8)” 섬김의 도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일과 분리할 수 없다. 좋은 주인의 모든 짐을 진다.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하여 바친다. 목숨까지도 바친다. 나눔(Koinonia)이란 모든 소유도 물질도 나누고 목숨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나눔이란 물질적 소유도 나누고, 삶과 경험도 나누고, 희로애락을 나누며 생명까지도 나눔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의 종의 도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디딤씨앗통장사업은 사회적 투자사업으로 2007년에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이 빈곤의 대물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정책으로서 시작되었다.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운영 체계는 CDA 후원자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중앙집권화된 적립금매칭시스템으로 민간단체 및 지자체, 금융기관(신한은행),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복지협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 초기단계임에도 2012년 1000억의 적립금을 달성한 저축실적의 성과는 성공적인 운영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복지통합적 요소를 가진 프로그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행초기에 대상아동의 100%가 CDA저축아동임을 감안한다면, 저축적립금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써 필요성과 함께 경제금융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교육지원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의 성공적 안착과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아동 경제교육 병행이 필수적”인 점을 강조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빈곤아동에 대한 경제교육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교육을 실시한 아동보호시설단체들 중에 70%가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단체로 나타났으며, 기독교경제학자들에게는 기독교세계관과 경제관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재능 기부함으로써, 보건복지부 또는 신한은행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또는 지역교회와의 후원협력사업을 통하여 물적자원형성지원과 영적자원형성지원을 담당하는 후원단체의 역할을 하는 섬김과 나눔의 이웃이 되기를 제언한다.

기독교 경제교육을 요보호아동에게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물질적인 빈곤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자산이 결여된 아동들로서, 영적자원의 빈곤도 경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고아, 과부에 대하여 각별히 말씀하고 계신다. 요보호아동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독교 경제교육은 성경말씀 대상 29: 11-12, 신 28:12을 기본원리로 한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영적자산형성의 후원자가 되신다.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의 손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께 가야 한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바로 섬김과 나눔이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빈곤아동, 요보호아동에 대한 맞춤형 기독교경제교육을 통해서, 빈곤에서 자립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독교 경제학자들의 진정한 사마리아인 이웃이 되어야 한다. 향후 빈곤아동에 대한 기독교 경제교육이 합리적 소비, 금융거래 습관 변화, 자산형성 의지 제고 등 프로그램 참가자의 행태적 변화를 유발하는 자원형성지원정책의 핵심프로그램이 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혜규 (2011). “2011년도 복지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전망(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58.
- 권시성 (2010).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193-218.
- 김승아 (2008). “저소득층의 자산과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연명·최영·남윤주·이용우 (2007). “아동발달지원계좌(CDA)제도 및 사업화대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김미숙·조애정·배화옥·최현수·홍미·김효진 (2007).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연 (2011). “아동발달계좌 사업이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7(4). 1-26.
- 김충련 (2009). “미국의 주요 재정사역기관의 성경적재정관리 원리비교.” 『로고스경영연구』. 7(1). 35-60.
- 박선정 (2011). “나눔의 필요성과 교육 사례연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41-190.
- 박정윤 (2006). 『행복한부자』. 영남대학교출판부.
- _____ (2006). “성경으로본 행복한 부자 인터넷 강의 과목개발사례.” 『로고스경영연구』. 4(2). 49-74.
- 보건복지부 (2008). “희망스타트(아동보호 통합 서비스)시범사업 안내서.” 보건복지부
- 석상훈 (2012). “자산빈곤의 현황과 과제. 복지패널을 통해 본 불평등과 빈곤(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31.
- 이윤재 (2007). 『성경속의 경제학』. 숭실대학교출판부.

- 이주하 (2011). “빈곤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이해.” 『한국사회정책』. 18(1). 11-42.
- 이태진·신영석·김미곤 (2005).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은아 (2010). “희망스타트 사업에 대한 복지정책적 분석.” 『사회복지실천』. 제9호. 59-80.
- 장진광 (2009). 『희년과 복음』. 두란노.
- 최영 (2007). “자원형성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 최영·이용우·이은주 (2009). “아동자산형성 지원제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영구. 캐나다.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5(4). 307-335.
- 황호찬 (2006). 『돈 그 끝없는 유혹』. 서울: IVP.
- 홍미·김홍숙 (2010). “2010년 디딤씨앗통장 희망주머니 경제교육 결과보고서.” 한국아동복지협회 CDA사업부.
- 홍은실 (2006). “청소년의 재정적 태도와 소비행동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2006. 73-92.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씨앗지원사업단 www.adongcda.or.kr
- Alcorn, R. (2003). *Money, Possessions, and Eternity*. 김신호 역 (2006). 『돈, 소유 그리고 영원』. 예영커뮤니케이션.
- Burkett, L. *Debt Free Living*. 김주성 역 (2002). 『빚지저 않고 사는 삶』. 배다니.
- _____ *How to Manage Your Money*. 박정윤 조성표 역 (2004).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 CUP.
- Alcorn, R. and H. Dayton (2006). *The Treasure Principle Workshop: Student Workbook with CD*. Crown Financial Ministries.
- Conwell, R. H. (2006). *Acres of Diamonds*. Harper.
- Crown Special Report (2003). *God, money and your faith*. Crown Financial Ministries.
- Crown Special Report (2005). *Crown Graduates Report Major Life Changes*. Crown Financial Ministries.
- Kim, Y. L. Zou, L. Joo and M. Sherraden (2011). *Asset-based policy in South Korea*. (CSD Policy Brief 11-22). St. 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 Loke, V. and M. Sherraden (2006). *Building assets from birth: A comparison of the policies and proposals on children savings accounts in Singapore, the United Kingdom, Canada,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SD Working Paper 06-14). St. 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 Nam, Y/ and C. Han (2009). *A new approach to promote economic independence among at-risk children: Child Development Accounts (CDAs) in Korea*. (CSD Working Paper 09-02). St. 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 _____ (2010). “A new approach to promote economic independence among at-risk children: Child Development Accounts (CDAs) in Korea”.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32(11). 1548-1554.
- Rowntree, B. S. (1901).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London: Macmillan.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Harmondsworth: Penguin.